



올해로 51호째를 맞는 강진청사축제가 지난달 23일부터 강진군 대구면 고려청사요지 일원에서 열렸다. 지난 1일 막을 내린 이번 축제는 코로나 19로 인해 4년 만에 대면 행사로 열렸으며, 이 기간 외국인 관광객 등 10만6000명의 최다 방문객 기록을 세웠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자연·문화자원 활용 찾아오는 '꿀잼도시'로

**사라지는 지방
막을 수 없나**

<6> 관광에 사활 건 광주·전남

광주·전남은 관광산업의 핵심인 자연적 자원과 문화자원이 다양하고 풍부하다. 전국 섬의 65% (2165개)를 차지하는 '섬의 천국', 전국 해안선 길이의 45% (6873km)에 이르는 광활한 해안선,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한국 갯벌'의 90.4%를 차지하는 천혜의 갯벌, 지리산, 무등산, 월출산,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그리고 국가지정대도를 끼고 흐르는 영산강, 섬진강 등 수변자원도 풍부하다. 여기에 완도 청산도, 신안 중도, 장흥 유치·장평, 담양 창평 등 아시아 최초의 슬로시티 인증 지역과 고인돌 유적(화순), 선암사(순천)·대흥사(해남), 필암서원(장성) 등 곳곳에 산재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은 한때 '버려진 땅' 취급을 받았던 광주·전남이 갖춘 천혜의 해양·관광 자원이다.

광주·전남 각 지자체들은 지방소멸 위기를 맞아 인구 유입 등을 위해 관광산업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수도권과 달리 접근성이 쉽지 않고, 홍보 부족과 부족한 숙박 인프라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히고 있다.

◇광주=그동안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KTX 호남선 개통, 하계유니버시아드·세계수영대회 등 국제대회 개최 등과 같은 역대급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남도의 맛·맛·흥이 어우러진 문화관광도시 육성을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관광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데 노력했지만, 큰 성과는 없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이런 가운데 민선 8기 들어 광주의 시급한 현안였던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과 복합쇼핑몰 유치, 전방·일신방지 부지 개발 등이 추진되면서 '광주 관광지도' 획기적으로 바뀔 것으로

섬·해안선·산·사찰·서원 등 천혜의 해양·역사·문화자원 풍부
기반시설과 프로그램 구축...체류형 복합관광도시로 거듭나야

보인다.

이 3대 현안과제가 실제 관광현장에서 실현된다면 광주 관광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강기정 광주시장의 공약사업인 영산강 익사이팅벨트(영산강·황룡강 습지센터 조성, 체험존 조성, 캠핑·문화시설 확대)와 송정역 활력벨트(송정 역세권 개발·국제 뮤직페스티벌 개최), 광주역 창업벨트(우지공원 호남권 최대 테마파크 조성) 등 5대 신활력특구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파급력 높은 시너지효과가 기대된다.

광주시는 또 기존 유사한 축제를 통·폐합하거나 조정을 통해 사계절 대표 축제를 브랜드화 계획이다. 스토리가 있는 '축제의 도시 광주'를 만들겠다는 포부다. 국제규모의 글로벌 MICE(복합전시)산업 인프라 확충과 스토리텔링 등 차별화된 관광콘텐츠 강화에 역량을 모으고 있다. 따라서 기존 문화관광산업 중심에서 민선 8기 광주가 다양한 꿀잼도시를 위한 체류형 복합관광도시로 거듭날지 주목된다.

◇전남=전남 관광정책의 핵심은 도처에 널려 있는 독특한 역사·문화·관광자원이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광산업을 키워 국내외 여행객들이 '찾아오는 꿀잼도시 전남'을 만드는 것이다. 전남도가 '2022~2023 전남 방문의 해'를 설정하고 국내 관광객 1억명, 해외 관광객 300만명이 찾는 국내 대표 관광지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이유이기도 하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전남을 찾은 방문객이 전년(3877만5900명)보다 9.3% 늘어나 4240만 명을 넘어섰지만 기대감도 크다. 전남도는 지난해에 이어 '전남 방문의 해 시즌 2'를 통해 지역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올해를 관광대국으로 가는 원년

으로 설정, '2023 한국 방문의 해'를 추진하는 것도 호재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 방문의 해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4~10월), 국제농업박람회(10월), 국제수목비엔날레(9~10월), 전국체전(10~11월) 등의 국제행사를 연계, 코로나 19로 인해 침체된 관광 산업을 서둘러 회복하겠다는 게 전남도 계획이다. 세계유산 문화자원 관광상품, 호라이즌(horizon·수평선 지평선) 시즌 드라이브 투어, 전남 캠핑박람회 등 전남만의 특화된 테마 관광자원을 활용한 상품도 마련했다.

섬·해양·문화콘텐츠를 아우르는 'K-관광 휴양벨트 조성'에도 적극적이다.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벨트 구축과 남부권 5개 지자체(전남·광주·부산·울산·경남)가 참여하는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계획은 섬·해양 자원을 갖춘 남해안을 세계적 관

광지로 육성하기 위한 전남도 구상이 엇보이는 계획이다.

체류형 관광지로 거듭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공을 쏟고 있다. '전국 휴가지 명소 3위', '50대 선호 관광지 1위' 등 가장 한국적인 여행지라는 평가에도, 전남지역 내 호텔·관광 펜션의 경우 객실 수(1만 1083실)가 부족해 수용 면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오는 2026년까지 명품 휴양 숙박시설을 1만7618실까지 확충하고 광양·여수·고흥·영광 등에 관광단지를 추가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다양한 관광 수요에 대응할 하드웨어(기반시설)와 소프트웨어(관광프로그램)를 동시에 구축, 전남의 관계인구(직접 거주하지 않더라도, 체험·문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교류하면서 지역과 관계를 맺는 인구)를 늘려 수도권 집중화로 지방이 붕괴되는 현실을 막아보자는 속내도 담겨있다.

/최원길 기자 cki@kwangju.co.kr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7월부터 신고할 휴대품 없는 입국자 신고서 안 쓴다

오는 7월부터 입국할 때 세관에 신고할 휴대품이 없는 여행자는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모바일로 관세를 조회·납부하고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는 한편, 민관 혁신 창출을 위해 무역데이터 개방이 확대된다.

관세청은 2일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디지털 관세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관세청은 국민 편의와 외국인 관광 활성화를 위해 입국할 때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는 의무를 오는 7월부터 없애기로 했다.

2019년 전체 입국자 4356만명 가운데 98.8%(4306만명)가 신고할 물품이 없는데도 신고서를 작성해야 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입국자 1655만

명 중 신고 대상 물품이 없는 입국자는 99.9%(1654만명)에 달했다.

앞으로 신고할 물품이 없는 입국자는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 물품이 있는 입국자는 현행처럼 모바일 또는 종이로 신고하면 된다.

관세청은 신고서 작성 의무 폐지로 생기는 가용 행정력을 마약 단속 등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관세청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오는 5월 모바일 관세 납부 시스템을 구축한다. 해외 직구(직접구매)가 늘면서 관련 과세 건수도 증가하고 있지만, 관세 납부 절차가 여전히 복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해외 직구 관련 과세 건수는 2021년 261만건에서 지난해 280만건으로 7.3% 늘었다. /연합뉴스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등
신규 국비사업 60건 발굴
광주시, 정부 부처에 신청

광주시가 신규 국비사업 60여건을 발굴하는 등 내년도 국비 확보 활동에 돌입했다. 시는 다음달까지 추가 사업을 발굴한 뒤 중앙부처에 신규 사업 반영을 요청할 계획이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4년 국비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열어 신규 사업 60건을 논의했다.

새 사업은 경제·산업 분야에서 광주·전남 첨단 의료복합단지 조성(총 1조500억원), 주행 조건별 안정성 향상데이터 기반 센서 검증기술 개발(290억원), 미래차 전환 중·소 부품기업 역량 강화(135억원), 인공지능(AI) 영재교 설립(1000억원 규모) 등이다.

문화·관광 분야에는 영산강·황룡강 Y-프로젝트 연계 사업(810억원), 아시아 문화전당 연계 양림권역 근대역사문화 관광벨트 조성(458억원), 세계적인 미술 축제 도시 조성(691억원) 등이 포함됐다.

광주시는 사회간접자본(SOC)과 복지 분야 사업으로 제3 순환 고속도로망 도로 개설(1조521억원), 전남대학교 병원 신축(1조2146억원) 등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추가로 대규모 국비 사업을 발굴하고 타당성 등 논리를 보완해 다음 달까지 중앙부처에 신청할 예정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총액 규모 관리를 먼저 생각하고, 일단 국비부터 확보하고 보자는 식으로 하다 보면 전체 재정 운영의 탄력성과 잃을 수 있다. 국비 확보 대상이 광주의 방향과 목표에 정확히 맞는지 고민해야 한다"며 "특히 통상 경제, 산업, 문화, SOC에 집중하는데 인문학적, 철학적 분야로도 관심을 넓히고, 예산이 안전, 환경, 기후 위기, 보건·의료, 인문 등 분야에 폭넓게 투자돼야 건강하고 안전한 삶의 보장은 물론 여러 방면에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 10년 성과와 과제 ▶6면

북스 - '상징으로 보는 세상' ▶14·15면



KIA 타이거즈 뜨거운 내야 경쟁 ▶18면

사랑과 감사의 69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3]
기독교영문대학교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The new EQS SUV

당신이 찾던 럭셔리 미래.
This is for pioneers.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6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광주 수원 전시장 062)716-5001 & 광주 민중중고차 전시장 062)945-0007 & 수원 서비스 센터 BP 062)942-7200 / GR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65(도전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 EOE 350+ 복합 에너지 소비효율(전기/kWh): 4.3(도상: 4.5, 고속도로: 4.1) 1회 충전거리(km): 471, 공차중량(kg): 2355, 배터리 용량(kWh): 88.8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제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품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사양 및 구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www.kwangshin.ac.kr